

# 주역 점(占)의 실제 체험-죽음, 신 그리고 사랑: 아버지의 영전(靈前)에서

이주현\* · 이부영\*\*

## 국문 초록

동시성 현상으로서 이해되는 주역 점(占)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곤경에 처했을 때, 즉 의식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진지한 마음으로 물음을 던지는 종교적 자세(religio)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것은 단지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겸손하지만 적극적인 자세이다. 초의식과 접촉하여 신탁을 얻는 주역 점의 체험은 의식의 자아가 무의식의 원형과 대화와 토론을 시도하는 적극적 명상과 일맥상통하며, ‘무의식의 절대지, 자기 원형의 리듬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나는 부친상을 당하기 1달 전, 대화가 불가능한 아버지를 간병하면서 ‘지금 아버지와 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주역 점을 쳐서 주역의 19번째 괘, 지택 임괘(地澤 臨卦) 초구 ‘함림정길(咸臨貞吉), 지행정야(志行正也)’를 점괘로 얻었다. 이 점괘를 통해 자연의 섭리에 ‘기쁘게 순종’하면서 겨울 뒤에 찾아올 봄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죽음 이후 생을 기다리는 자세, 그리고 통속적인 이해타산을 넘어서는 인간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무한한 것(분석심리학적 용어로는 ‘자기[Self]’)과의 만남에서 얻은 감동을 굳건한 마음으로 지켜가는 것이 인생의 참뜻을 바르게 행하는 것임을 나는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부친상 6개월 전에 끝, ‘저승’에 대한 꿈에서 ‘죽음 뒤에도 이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이 진실’이라는 직접적인

접수일 : 2022년 10월 31일 / 심사완료 : 2022년 11월 17일 / 게재확정일 : 2022년 12월 12일

\*아이나래 정신건강의학과의원

\*\*한국융연구원

**Address for correspondence: Bou-Yong Rhi, M.D. Ph.D., C.G. Jung Institute of Korea, 122 Seongbuk-ro, Seongbuk-gu, Seoul 02837, Korea**

Tel: +82-2-3673-2550, Fax: +82-2-743-5649, E-mail: cgjukorea@naver.com

메시지의 충격 이외에도 확충의 과정을 통해 드러난 폐쇄 병동과 황천의 유사성-내향화를 통한 정신의 재생, 하얀 철문-, ‘영원을 향한 창문’을 통해 통과 의례를 거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는, 열린 태도의 중요성을 배웠다. 그리고 천주교의 교리 ‘성인의 통공’-산 자와 죽은 자가 서로를 도우며 나선형으로 순환하는 과정-이 우리의 정신 내에서 의식과 무의식이 상호작용하는 개성화 과정의 상징으로서 뿐만 아니라 실제일 수도 있다는 조그마한 희망을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진행된 ‘연도(煉禱)’의례를 통해 어렵פות이 품게 되었다. 그리고 인생에서 만난 많은 인연들의 조문을 통해 받은 위로 속에서 무한한 것과 접촉하여 맺어지는 길은 바로 눈 앞에 있는 존재들과 사랑하는 것이 그 시작이라는 답을 나는 우선 얻었다. 이러한 연속적인 체험을 분석심리학적 입장에서 이해하고자 했다.

**중심 단어 :** 주역 점; 동시성; 종교적 태도; 죽음; 무한.

## 들어가는 글

이 세상에서 인간이 던질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정말로 신(God)이 있을 것인가?”<sup>1)</sup>일 것이다. “정말 정신적인(초자연적) 신이 존재하는가?”, “만약에 신이 존재한다면 그 신은 물질 세계에는 어떻게 관여하는가?” 이러한 질문이 궁극적인 질문이 되는 이유는 “정신을 가진 인간 존재에게 삶의 지표와 의미를 부여하는데 신(神)이 어떻게 관여하는가?”라는 질문과 이어지기 때문이다. 보통 이러한 질문은 죽음과 대면하는 순간 더욱 선명하게 다가온다. 냉정한 -중력, 시간과 공간 같은 물질 세계의 우주 법칙뿐만 아니라 슬픔과 기쁨을 느끼고 정의(正義)를 요구하기도 하는 인간 정신과 소통할 수 있는, 하지만 우주를 관통하는 그런 정신적 존재, 신이 존재하는가? 하지만 이러한 질문의 답을 찾는데 기존의 과학적 방법론과 패러다임만으로

1) 이 논문은 내가 부친상을 탈상한 새벽 1시부터 단숨에 써 내려간 글에서 시작되었고 그 글은 일종의 조문 답례문이 되었다. 이 글을 쓸 때 나에게 떠오른 질문은 형이상학적이거나 신학적 질문이라기 보다는 실제 부친상을 경험한 후에 찾아온 감흥과 그것에 따른 실존實存적 의문에 의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심리학이 종교 체험으로서의 신神에 관심을 두는 쪽에서 더 적합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계시에만 의존하는, 기존의 개인적 종교 체험만으로 설명하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C.G. 융은 인간의 무의식의 발견과 그것의 관찰 가능한 형태인 꿈과 환상에 대한 탐구를 통해 종교적 계시와 과학적 태도의 절묘한 교차점, 종교와 과학 사이의 다리를 만들고자 시도하였다. 꿈의 해석을 위해 C.G. 융은 ‘확충(amplification)’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을 만들어냈다. 확충은 꿈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그 이미지에 대한 개인적, 보편적 연상을 모으는 방법으로 현대인의 자연발생적인 꿈이 그려내는 이야기들과 고대 종교에서 나타나는 신화(神話)의 의미심장한 일치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연금술에서 말하는 물질과 정신이 하나의 근원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우누스 문두스(Unus mundus),<sup>2)</sup> 하나의 세계를 시사하는 현상, 동시성(同時性) 현상들도 융 자신과 환자들의 삶 속에서 접하게 된다.

## 주역 점과 동시성 현상

동시성 현상은 내적인 심리적 사건과 외부의 물리적 사건 사이의 의미상의 일치가 있고, 전혀 인과 관련을 찾아볼 수 없어 우연이라 부르는 현상<sup>3)</sup>을 두고 말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타향에 있는 친지가 작별을 구하는 꿈을 꾸고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품은 채 꿈에서 깨어났는데 그 친지의 사망 시간이 거의 일치하는 체험 같은 것이다. 우리의 논리로 남김없이 증명할 길은 없으나 그 존재를 확신할 수 있는 어떤 것이다.<sup>4)</sup> 융은 환자와의 분석을 통해 얻은 경험심리학적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리하르트 빌헬름을 통해 깊이 배운, 중국 고대 철학인 ‘주역 점’에 대한 살아있는 체험, 그리고 현대 양자물리학 태생기의 천재 물리학자인 볼프강 파울리와 공동 작업을 더해 ‘비인과적 동시성 현상’에 대한 이론을 만들었다.

2) Von Franz ML, 이부영(역) (2016): 《C.G. 융-우리 시대 그의 신화》, 한국융연구원, 서울, p265.

동시성 사건들은 모든 존재의 궁극적인 통일체를 경험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것을 융은 중세의 자연철학에 의거하여 우누스 문두스(Unus Mundus, 하나의 세계)라 명명하였다. 중세철학에서 이 개념은 잠재적으로 신의 영Geist 속에 미리 존재하고 있는 창조의 설계도를 말한다. 이 설계도에 따라 신은 뒤에 창조를 완수했던 것이다.

3) 이부영 (2011): 《제3판 분석심리학》, 일조각, 서울, p332.

4) 이부영 (2011): 앞의 책, p332.

리하르트 빌헬름은 선교사로 중국으로 건너갔다가 도리어 동양사상에 매료되어 심취하였고 [역경]을 노도사(老道士) 라우 나이 쉐안(Lau Nai Suan)과 함께 독일어로 번역하였다. 용은 1923년 취리히 심리학 클럽에 빌헬름을 초대하여 주역에 대한 강의를 들은 후 외우(畏友)로서 교류하였다. 당시 강의에서 빌헬름은 주역점을 통해 2년 후의 일을 정확히 예측하였다고 한다. 그의 번역은 서양의 주역 번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용은 독일어판 역경을 영어로 번역한 [역경]에 서문을 써주었고 용기안들은 주로 빌헬름의 번역을 많이 참조한다.<sup>5)</sup> C.G. 용은 [리하르트 빌헬름을 추모하며<sup>6)</sup>]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역경은 중국 문화의 정신이 어떠한 지를 보여주는 최상의 작품입니다. 중국 최고의 석학들이 수천 년 동안 이 책을 공동 연구하였고 이해에 공헌해왔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결코 진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의미를 이해하는 몇몇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살아 있으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나처럼 빌헬름과 정신적인 교류를 통하여 [역경]의 신성한 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극소수 행운아들은, 우리 서양인의 정신적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게 하는 아רכ이메데스의 점에 닿았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숨길 수 없습니다. 만약 [역경]의 생생한 효력을 경험하는 데 성공한다면 동양 정신의 참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역경]의 실제 적용에 기초하고 있는 기능은-내가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하다면-어떤 식으로 보아도 우리 서양의 학문적-인과론적 세계관과는 첨예하게 모순됩니다. 다시 말해, [역경]의 실제 적용은 대단히 비학문적이어서 곧 중지하게 되고, 또한 우리의 학문적 판단에서 벗어나므로 이해되지 못하고 맙니다. [역경]의 학(學)은 인과론에 기초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껏 우리에게 없었기 때문에 명명되지 못한 어떤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나는 이 원리를 시험적으로 동시성적(synchronistisch) 원리라고 명명해보았습니다. 나는 무의식의 과정을 다루는 심리학 연구에 전념하면서 수년 전에 이미 어떤 다른 해명의 원리를 찾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인과론적 원리만으로는 특정의 주목할 만한 무의식 심리학의 현상들을 설명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입

5) Jung CG, Wilhelm R, 이유경(역) (2014): 《황금 꽃의 비밀 중국의 생명의 책》, 문학동네, 서울, pp19-26.

6) Jung CG, Wilhelm R, 이유경(역) (2014): 앞의 책, p19. 1930년 5월 10일 뮌헨에서 열린 빌헬름 추모제의 추도사.

니다. 우선 나는 인과론적으로 전혀 연관되지 않으나, 틀림없이 어떤 다른 사건 발생의 관계성 안에 있는 심리학적 유사 현상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sup>7)</sup>

이부영은 ‘우리가 사는 세계에 때때로 새로운 것들이 창조되는 장(場)이 있고 동시성 사건은 그런 장을 여는 창조행위이다. 중국적 사고로는 이런 생각이 극히 일상적이며 자연스럽지만 서구인에게는 매우 혁명적인 생각이 아닐 수 없다.’<sup>8)</sup>고 융이 말한 서양인의 정신적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게 하는 아רכ메데스의 점에 대해 설명한다.

볼프강 파울리는 양자역학의 배타원리의 발견으로 1945년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천재 물리학자이다. C.G. 융과 볼프강 파울리는 1952년 [자연의 해석과 정신]을 함께 저술하였고, 여기에서 ‘비인과적 동시성 원리’를 제시하였다. 그들은 파괴할 수 없는 에너지-시공간연속체, 결과를 통한 지속적 연결(인과율)-우연, 동등, ‘의미’를 통한 비(非)지속적 연결(동시성)이라는 사위의 도식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모델에 의하면 비인과적 동시성 현상에서 보이는 일치들은 더 이상 순수한 우연이 아니라, 인과적 설명의 결핍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의미있는 배열로서 생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9)</sup>

동시성 이론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정신과 신체, 정신과 물질 너머에 정신도 물질도 아닌 하나의 세계, ‘우누스 문두스(Unus mundus)’가 있고, 그리하여 정신과 물질을 매개하는 것-정신양(精神樣) 기능(Psychoid function)-의 존재와 작용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sup>10)</sup>

이러한 동시성 이론에 대해 토론토 대학교 정신의학과 조교수인 랠프 루이스는 그의 저서 ‘신 없는 세상에서 목적 찾기’에서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다.

선택적 주목, 확증 편향, 사후 예지 편향(hindsight bias) (사건이 일어난 뒤에 그 사건에 의미가 있었다거나 예측 가능한 것이었다고 보는 경향)에 의한 인지적 오류에 의해서 우리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지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특히 ‘섬뜩한’ 또는 ‘등골이 서늘한’ 느낌을 불러넣어 감정적인 울림을 주는 우연의 일치에

7) Jung CG, Wilhelm R, 이유경(역) (2014): 앞의 책, pp22-26.

8) 이부영 (2011): 앞의 책, p338.

9) Jung CG, Pauli WE, 이창일(역) (2015): 《자연의 해석과 정신》, 연암서가, 경기도, p13, p194, p199.

10) 이부영 (2011): 앞의 책, p340.

우리는 개인적인 의의와 우주적인 의도를 부여하는 경향을 가진다. 사실 등골이 서늘하다는 느낌이 들면 들수록, 우리 자신의 감정적 추리(emotional reasoning)에 더욱 의심을 가져야 한다. 개인의 역사(와 사회의 역사)는 사람들이 자신이 했던 결정이나 행동들—끔찍한 것이 많이 있다—을 ‘신호’ 해석을 통해 정당화하는 무수히 많은 사례들로 가득하다. 정신과 환자들에게서 나는 인간의 이런 흔한 습관이 크게 증폭된 모습을 날마다 관찰하는데, 그들을 보면 그것을 매개하는 인지 과정들이 더욱더 명백하게 드러난다.<sup>11)</sup>

스스로 과학적 정보를 가진, 세속적 휴머니스트의 세계관을 가졌다는 정신과 의사인 랠프 루이스의 입장은 유물론적 관점을 과학적이라고 여기는 현대의 신화를 잘 보여준다.

뇌가 하는 일이 바로 마음이라는 현대 신경과학적 입장과 약물 치료에 의한 정신의 놀라운 변화를 매일 경험하는 정신과 의사로서의 그의 생각을 같은 정신과 의사로서 나도 충분히 이해는 간다. 그리고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약물 치료의 중요성을 분명히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실제 정신과 의사로서의 나의 일상의 대부분이다. 하지만 과학적 회의주의가 자칫 잘못되면 ‘~에 불과한 nothing but thinking’ 환원주의적 오류와 불가지론(不可知論)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 랠프 루이스의 비판에 대해서는 이미 C.G. 용도 충분히 고려하였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용이 모든 우연의 일치를 전부 동시성 현상이라고 규정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다. 정신병리적 망상 지각 현상이나 원시신앙을 바탕으로 한 주술적 사고에서는 모든 것이 필연이라고 믿으며 인과법칙에 따라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나로부터 기(氣)가 뺏어 나간 때문이다. 동토(動土) 귀신이 노한 결과이다. 등의 해석이 그것이다.’<sup>12)</sup>

‘용은 자연의 인과적 서술에 포함되지 않는 현실의 특정한 양식을 마술적-인과적 사고의 고태적 양상으로 소급시키지 않고 동시적 사건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시성’이라는 용어를 제안하였다’<sup>13)</sup>고 테오도르 압트는 설명한다.

11) Lewis R, 류운(역) (2022): 《신 없는 세계에서 목적 찾기》, 바다출판사, 서울, pp91-100.

12) 이부영 (2011): 앞의 책, p332.

13) Abt T, 이유경(역) (2008): 《용 심리학적 그림해석》, 분석심리학연구소, 서울, p111.

분석심리학의 내용 중에서도 유물론적 입장과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지점이 바로 동시성 이론이라 할 수 있다. 랠프 루이스는 의미를 찾아나서는 인간의 성향 자체도 진화 심리학적 입장에서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세속적 휴머니즘의 세계관은 비록 우주는 보살피지 않을지언정 우리 사람은 보살핀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sup>14)</sup>고 결론을 맺는다. 그의 훌륭한 휴머니즘적 결론은 존중하지만 입장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이에 대해 분석심리학은 ‘정신적인 것을 생물학적 과정의 결과로 보는 심리학은 ‘혼(魂)이 없는 심리학’이라고 본다. ‘혼이 있는 심리학(Psychologie mit Seele)’을 주장하는 용은 ‘혼’의 독자성을 강력히 주장한다.<sup>15)</sup> 유물론과 대립하는 유신론자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한다. ‘인간의 정신은 뇌의 생화학적 작용에 의해 조건 지워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무엇이다. 마치 라디오 수신 장치가 없다면 그 음악을 들을 수 없지만, 그 음악은 라디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아닌 것처럼. 이성과 도덕이 나타나는 다양하고 복잡한 조건은 자연과 초자연의 사이의 경계선의 굴곡들이다. 이것이 바로, 원한다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초자연을 무시하고 순전히 현상을 자연 측면에서만 다룰 수도 있는 이유이다.’<sup>16)</sup> 나는 지금 랠프 루이스와 C.S. 루이스의 관점 사이에서 C.S. 루이스 쪽으로 좀 더 기울어져 있다.

## 용의 <역경> 서문: 주역 점의 해석과 꿈의 해석

C.G.용은 <역경> 영역판 서문에서 이렇게 말한다.

점(占)의 방법은 오용될 소지가 많다. 그러므로 그 방법은 미숙하고 유치하며 성실치 못한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고, 주지주의(主知主義)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에게도 적합하지 않다. 이에 반해, 그들이 하고 있는 것과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숙고하기를 좋아하는 명상적이고 반성적인 사람에게는 실로 적합하다.<sup>17)</sup>

[역경]은 일부의 자연처럼 누군가가 그것을 발견할 때까지 기다린다. [역경]은 어떤 지식이나 능력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스스로를 알기를 좋아하고 사색

14) Lewis R, 류운(역) (2022): 앞의 책, p426.

15) 이부영 (2011): 앞의 책, p43.

16) Lewis CS, 이종태(역) (2008): <기적>, 흥성사, 서울, pp80-81.

17) Jung CG, 한국용연구원 C.G.용 저작번역위원회(역) (2004): C.G. 용 기본저작집 제9권 <인간과 문화>, 솔출판사, 서울, p229.

과 행동의 지혜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할 경우에는, 올바른 책임 것 같다.<sup>18)</sup>

여기에서 C.G. 융은 주역 점의 방법이 적합하지 않은 사람과 적합한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통찰 정신치료의 적응증(indication)처럼 보인다. 이어지는 설명에서 이러한 적응증은 꿈 분석을 위한 피분석자의 조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점의 방법이 적합한 사람에 대한 조건은 무의식의 산물인 꿈의 분석을 통해 자신의 곤경을 해결하려는 사람, 피분석자의 태도에 대한 조건이기도 하다. 의식의 자아가 미숙하고 유치하며 성실치 못한 사람에게는 꿈의 해석이 도리어 해로울 수도 있다. 주지주의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은 꿈의 해석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고 분석을 시작하기조차 꺼릴 수도 있다.

점의 방법은 반드시 상당한 이해력을 가지고 사용되어야 한다. 어리석음은 지지하는 바와 같이 재주가 아니다.<sup>19)</sup>

여기에서 C.G. 융은 주역 점의 점괘에 대한 해석에 대해 무의식의 산물인 꿈을 해석하는 것과 같은 태도로 임해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주역 점괘나 무의식의 산물, 꿈을 해석하는 분석가의 이해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 꿈의 해석을 위해서는 많은 지식뿐만 아니라 자신이 꿈의 분석을 받는 경험이 꼭 필요하다. 꿈은 화석화된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 속에 있는 자연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설사 미신적으로 사용되는 점의 방법에도 ‘지금 나에게 무엇이 문제이고, 지금의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유리한가?’를 물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자신의 대한 통찰(insight), 자기 인식에 이르러야만 한다. 그것이 점서인 주역이 지혜의 서로 바뀔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빌헬름은 이야기한다. 융은 팔십대에 접어들면서 역경에 대해서 신중한 주의를 깨고 서문을 썼다고 말한다.

나는 이전에 단 한 번 리하르트 빌헬름에 대한 추도사에서 [역경]의 문제에 관

18)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번역위원회(역) (2004): 앞의 책, p230.

19)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번역위원회(역) (2004): 앞의 책, p230.

해서 의견을 말한 적이 있었으나, 그 외에는 조심스럽게 그것에 관해 침묵했다. 이제 나는 이런 신중한 주의를 깨뜨리고 실로 그것을 감행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사람들의 다양한 견해들로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고, 또한 나에게는 옛날의 대가들의 사상이 학구적인 화제보다도 더 흥미 있는, 인생의 팔십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sup>20)</sup>

용은 <역경> 서문을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다.

<역경>의 정신은 어떤 사람에게는 밝게, 다른 사람에게는 흐리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깜깜한 밤처럼 나타난다. <역경>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역경>에 반대하는 자는 그것을 진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역경>은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에 나온 것이리라.<sup>21)</sup>

## 주역 점과 종교적 태도

주역 점괘를 구하기 위해 의식의 자아는 명료한 질문을 준비하고 주역 점괘로서 나온 주역의 응답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 주역 점은 점을 치는 사람과 주역의 대화와 토론이다. 이런 대화에 대해 리하르트 빌헬름은 이렇게 설명한다.

여기에 신탁(oracle)의 심리적 기반이 설명되어 있다. 신탁에 자문하는(consulting the oracle)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말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그것이 먼 것이든 가까운 것이든, 은밀한 것이든 심오한 것이든 상관없이 적절한 신탁을 받아 마치 메아리처럼 미래를 알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의식(conscious)과 초의식(supraconscious)이 관계에 들어간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의식적 과정은 질문의 공식화와 함께 멈춘다. 무의식의 과정은 톱풀 줄기를 나누는 것에서 시작되며, 이 나뉜진 결과를 책의 본문과 비교하면 신탁을 얻는다.<sup>22)</sup>

20) Jung CG, 한국용연구원 C.G. 용 저작번역위원회(역) (2004): 앞의 책, p242.

21) Jung CG, 한국용연구원 C.G. 용 저작번역위원회(역) (2004): 앞의 책, p250.

22) Wilhelm R (1950, renewed 1977): *The I Ching or Book of Changes (Bollingen Series [General])*, Princeton University Press. Kindle Edition, p314.

리하르트 빌헬름의 설명에서 초의식은 분석심리학적으로는 집단적 무의식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초의식과 접촉하여 신탁을 얻는 주역 점은 의식의 자아가 무의식의 원형과 대화와 토론을 시도하는 적극적 명상과 일맥상통한다. 이에 대해 이부영은 이렇게 설명한다.

사람은 곤경에 처했을 때, 즉 의식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진지한 마음으로 물음을 던지고, 그 물음과 함께 동전을 굴리거나 점치는 시초 줄기를 숫자대로 가르는 행위가 일어나고, 수의 질서로 표현된 궤의 회답이 나올 때, 물음과 손의 놀림과 답이 의미상으로 일치하게 된다. 응이 말하는 무의식의 절대지는 의식의 힘이 약할수록 선명하게 드러난다. 역의 물음은 자기원형의 의도를 찾아가는 물음이다. 즉, 모든 원형들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이며 모든 심적 요소를 조정하는 '자기원형의 리듬'을 찾아가는 과정이다.<sup>23)</sup>

이러한 무의식의 절대지의 신통한 점괘를 얻으려면 주술적 태도가 아니라 '의식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진지한 마음으로 물음을 던지는' 종교적 태도가 필요하다. 이부영은 이렇게 말한다.

모르는 것, 즉 무의식에 대한 관심은 보편적이며 인간적인 관심사이다. 그러나 무의식은 호기심으로 장난 삼아 묻는 삶, 혹은 자기 마음의 성찰보다 구체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묻는 사람에게 결코 답을 주지 않는 법이다. 무의식에 대한 경솔한 해석은 그렇게 해석을 내린 사람에게 해롭다. 현재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술적 태도에서 종교적 태도로의 전환이다. 종교적인 태도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 지소서'하는 마음이라면 주술적 태도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는 태도라 할 수 있다. 응에 따르면 종교성은 '주의 깊은 관조'(관찰)의 태도를 말한다.<sup>24)</sup>

주역 점괘를 얻어 실행할 때에도 이러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 지소서'라는 종교적 태도가 중요하다. 이러한 종교적 태도를 김석진은 이렇게 설명한다.

23) 이부영 (2011): 앞의 책, p337.

24) 이부영 (2012): 《한국의 샤머니즘과 분석심리학, 고통과 치유의 상징을 찾아서》, 한길사, 경기도, p692.

복(卜)<sup>25)</sup>이란 글자의 뜻은 [하늘과 땅 사이(이)]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를 들어 (卜) 물어본다는 뜻이고, 점(占)이란 글자의 뜻은 복(卜)에서 물어본 것을 매개자의 입(口)을 통해 말한다(占)는 뜻이다. 이에 대하여 공자께서도 “도(道)가 나타나고 덕행을 신비하게 하느니라. 이런 까닭에 더불어 주고받을 수 있으며, 더불어 신(神)을 도울 수 있으니, 변화의 도를 아는 자 그 신의 하는 바를 아는구나(계사상전 제9장)”라고 하셨다. 여기서 유의할 문구는 “더불어 신을 도울 수 있으니”라는 대목이다. 인간이 알고자 하는 일을 가르쳐 주고 싶어도, 표현할 방법이 없어 돕지 못하는 것을 괘상(卦象)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표현하니, 그 점치는 사람은 신(神)이 하고자 하는 바를 돕는다는 뜻이다. 즉 알고자 하는 자는 나타난 괘상을 해석하여, 신이 가르쳐 주는 것을 그대로 행한다는 것이다.<sup>26)</sup>

이러한 김석진의 설명에서 ‘점(占)은 신의 뜻을 받아서 실행하는 것’이라는 신탁(神託, oracle)으로서의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고, 그것은 ‘인간으로서 신(神)이 하고자 하는 바를 돕기 위해, 신이 가르쳐 주는 것을 그대로 행한다’는 종교적 태도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세에서 주역 점괘를 구할 때의 주의할 점이 생겨났다.

옛사람들은 “궁금하면 점을 치고 궁금하지 않으면 점을 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역경>의 기본적인 점술 원칙이다. 점술 원칙은 점괘의 ‘신통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마음이 안정되지 않거나 간절하지 않으면 점을 치지 않는다. 사악하고 추잡한 일, 사행성의 일, 음란한 일로 점을 치지 않는다. 하나의 일로 한 번의 점만 친다. 동일한 일로 오늘과 내일 점을 치지 않는다. 간절한 마음으로 점을 쳐야 하늘을 감동시켜 응답을 얻을 수 있다. 시험 삼아 점을 치지 않는다. 이미 마음으로 결정 내린 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일

25) 김경일 (1999): 《김경일 교수의 갑골문이야기》, 바다출판사, 서울, pp111-113.

중국 은나라 황실에서 점 친 기록인 갑골문을 관리하고 문자를 기록하던 사람, 전문 관리가 정인(真人)이다. 당시 점복의 일반적인 형태는 거북이나 짐승 뼈의 한 쪽 면(주로 내장이 닿아 있던 거친 부분)에 불 붙인 쑥대를 대 반대쪽이 쪼개지도록 한 후, 그 쪼개진 모습을 보고 길흉을 판단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쑥대를 통해 전달된 열은 거북 뼈를 달구어 마침내 앞쪽에 뽁뽁 소리를 내며 갈라지면서 모양을 내는데, 이 모양이 바로 복(卜)의 원형이다. 즉 직선으로 갈라진 후 다시 옆으로 가지가 갈라지는 모습이 복(卜)인 것이다. 발음이 ‘복’인 것은 갈라지는 소리 때문이다.

26) 김석진 (1994): 《대산주역점해》, 대유학당, 서울, p8.

은 점을 치지 않는다. 도박이나 무위도식을 위해 점을 치지 않는다. 그 요지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성을 다하여 생각을 집중시키라는 것이다.<sup>27)</sup>

그 핵심은 ‘간절한 마음으로 점을 쳐야 하늘을 감동시켜 응답을 얻을 수 있다.’이다. 간절한 마음이 ‘종교적 태도’이고, 이것은 일종의 ‘기도(祈禱) 응답(應答)’과 같은 효과를 불러온다. 이러한 ‘종교적 태도’를 분석심리학적 용어로 표현하자면, ‘자신의 무의식에서 자기(Self)의 뜻을 발견하고 실현하려고 의식의 자아(ego)가 노력하는 것, 또는 성숙한 자아가 자기의 실현을 돕는 도구’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 주역 점을 해석하는 방식

주역 본문은 64괘의 괘명, 괘사, 괘사에 대한 설명인 단(象) 상(象)(대상[大象]) 그리고 효사, 효사에 대한 설명인 상(소상[小象])으로 구성되어 있다. 빌헬름은 괘사는 Judgement, 단은 Commentary on the Decision, 상은 The Image로 번역했다. 복희씨가 만든 괘상에 문왕이 괘사를 통해 풀이했고, 이 괘사에 대해서 단, 상으로 공자가 주석을 붙인 것이라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괘에 대한 첫 번째 설명인 괘명과 가장 오래된 해석(문왕의 해석)인 괘사이다. 여기에 점을 친 사람의 상황과 조언이 상징적으로 담겨져 있다. 이러한 주역 점괘의 해석 방법에 대해 에라노스 역경 프로젝트에서 루돌프 리테마<sup>28)</sup>는 이렇게 설명한다.

상황의 이미지(The Image of The Situation)-괘의 형상은 원형적 상황(archetypal situation)을 묘사한다. 그것은 각 괘의 중심 신탁이며, 괘의 다른 모든

27) 주성(周行), 고평민(譯) (2010): 《그림으로 풀어 쓴 역경》, 김영사, 서울, p96.

28) ‘동서양의 만남의 장소(Begegnungsstätte zwischen Ost und West)’로 하자는 C.G. 융의 제안에 따라 에라노스(eranost) 연례 회의를 창립한 올가 프뢰베-카테인(Olga Fröbe-Kaptein)에 의해 후계자로 지정되어 에라노스 재단 회장으로 1990년대 초반까지 지켜간 루돌프 리테마(Rudolf Ritema) (1918-2006)는 1944년(당시26세) 올와인 폰 켈러(AI-wine von Keller)에게 분석을 받으면서 주역에 대해 소개를 받은 후 주역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를 하여 1993년, 1994년, 1995년 에노라노 연례 회의에서 주역에 대해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출간한다. 여기서 분석심리학적 이해에 바탕한 주역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 성과를 볼 수 있다. 루돌프 리테마가 주역의 번역에 완결짓는데 미국의 시인인 스테판 카셔(Stephen Karcher)가 도왔다.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미지에 대한 첫 단어인 괘의 이름은 상황에 대한 설명과 가장 효과적인 대처 방법을 동시에 제공한다. 텍스트(괘사)는 시간의 역동성에 그것을 배치하고, 그것과 관련된 주요 특성과 행동을 나타낸다.<sup>29)</sup>

위의 설명을 참고하면 주역 점괘를 이해할 때 제일 먼저 살펴야 하는 것은 괘상이다. 괘상에서 상괘와 하괘에 배치된 8괘의 속성과 관계를 살피고 괘명을 살피는 것이 가장 먼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것은 합리적인 논리 이전에 직관적인 인식이 가깝다. 그리고 난 후에 괘사를 접해서 좀 더 그 뜻을 음미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효를 점괘로 받았을 때도 우선 괘명과 괘사를 살펴보고 그 효사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뒤에서 실례를 통해 살펴보겠지만, 주역의 본문을 상징적으로 이해하여야 하고, 고정된 사물이 아니라 변화의 과정으로 이해하여 상황의 길흉에 따라 대처하는 자세와 방법을 찾는 것이 주역을 읽는 목적이다. 그것은 주역 점괘를 신탁으로서 받아들여 하늘이 나를 도울 수 있게 내가 하늘의 뜻에 순응하는 것이다.

리하르트 빌헬름은 주역이 점서(占書, the book of divination)에서 지혜의 서(書, the book of wisdom)가 될 수 밖에 없는 과정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각 상황에는 그에 걸맞은 행동이 필요하다. 모든 상황에는 옳고 그른 행동 방향이 있다. 분명히 옳은 길은 행운을 가져오고 그릇된 길은 불행을 가져온다. 그렇다면 주어진 어떤 상황에서 무엇이 옳은 길인가? 이 질문이 결정적 요인이다. 그 결과 역경은 보통의 점술서의 수준을 넘어서었다. 카드를 읽은 점쟁이가 고객에게 일주일 안에 미국에서 돈이 든 편지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면 고객은 편지가 올 때까지 또는 오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경우에 예언된 것은 운명(fate)이며, 개인이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아주 독립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운세(fortune telling)는 윤리적 의미가 부족하다. 중국에서 처음으로 어떤 사람이 미래의 조짐을 들었을 때 그 일을 가만히 두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라고 묻는 일이 있었을 것이다. 그 때 점서는 지혜의 서가 되어야만 했다.<sup>30)</sup>

29) Ritema R, Karcher S (1996): 1993-1994-1995, *JAHRBUCH-YEARBOOK-ANNALES ERANOS I Ching Projcet part I, 4-6*, Eranos Foundaton, Ascona, p23.

30) Wilhelm R (1950, renewed 1977): libd, indtruduction.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진심으로 묻는 자세에서 지혜가 생겨나기 시작한다. 지혜는 단순한 지식의 축적을 넘어서는 것이다. 거기에는 자신의 삶을 책임지려는 의지(意志)가 있는 것이다. 그 의지가 미래를 만든다. 그리고 빌헬름은 지혜의 서로서의 주역의 방식을 설명한다.

변화의 서(the Book of Changes)는 사건의 이미지와 상태의 전개를 보여준다. 따라서 장차 올 것의 씨앗을 그 도움으로 분별함으로써 우리는 과거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법도 배운다. 이러한 방식으로 궤(hexagrams)의 기반이 되는 이미지는 제시된 상황에서 시기 적절한 조치를 위한 패턴으로 사용된다.<sup>31)</sup>

장차 올 것의 씨앗, 조짐을 보는 것,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의식의 사고, 감각 기능만으로는 부족하다. 감정에 바탕한 직관 기능이 필요하다. 주역 점괘는 이러한 직관 기능의 활성화와 연관된다. 이러한 주역의 점서와 지혜의 서로서의 두 측면을 통합하는 것을 합리적 사유 방식과 합리적이지 않은 사유 방식의 통합으로 이창일은 설명한다.

주역을 점서(占書)로만 보거나, 혹은 철학적인 내용으로 이해하는 의리역으로만 보아 단면화시키는 것은 주역의 생명력을 제거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점서역과 의리역의 통합이란 인간의 합리적 사유 방식과 합리적이지 않은 사유 방식의 통합이다.<sup>32)</sup>

이기동은 궤사와 효사를 보는 법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궤사와 효사의 내용은 대체로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 궤나 효가 놓여진 상황을 설명한 것, 둘째, 그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 셋째, 대처한 결과 나타나는 길흉을 제시한 것이 그것이다. 길흉은 점을 치는 사람에게 궤나 효의 내용을 실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제시한 것이다. 이는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옳은 일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매를 때리거나 상을 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황설명이 생략된 것도 있고, 길흉판단이 생략된 것도 있다. 그러

31) Wilhelm R (1950, renewed 1977): Ibid., indtruduction.

32) 이창일 (2008): 《주술과 周易: 占筮易과 義理易의 통합적 이해의 역사》, 서강민문논총 23집,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서울, p195.

한 경우는 그 생략된 부분을 보완하여 읽어야 한다. [주역]의 세 요소에 토를 달면 다음과 같이 읽을 수 있다. '여차여차한 상황이니, 여차여차하면, 여차여차하다.'<sup>33)</sup>

이렇게 보면 주역의 점괘를 읽은 방법은 분석심리학에서 꿈을 해석하는 방법과 유사하다. 주역의 점괘가 상황과 그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제시한다고 보는 시각은 분석심리학에서 꿈이 의식의 상황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면서 무의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보는 시각과 비슷하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이부영은 이렇게 말한다.

꿈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 마음 속의 여러 가지 콤플렉스(complex)이고 환자의 꿈은 꿈을 꾸 사람이나 치료자의 마음속의 콤플렉스를 자극하게 되므로, 사람들은 꿈이 제시하는 실상을 보지 못하고 그 속에서 자기의 콤플렉스를 보게 되기 쉽다. 다시 말해서 꿈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꿈에 투사된 각자의 문제-이들테면 자신의 그림자-들을 꿈의 뜻이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꿈은 마치 투사를 받는 로르샤흐(Rorschach) 심리검사의 여러 개의 도면과 다를 바 없는 것이 되고, 꿈을 앞에 놓고 사람들은 자기 문제만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제 문제임을 모르게 되므로 분석적 치료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내가 무엇을 투사하고 있는가”, “어디에 나의 맹점이 있는가”에 대한 통찰을 끝내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sup>34)</sup>

주역 점괘의 해석에서도 잘못된 꿈의 해석과 같이 과사와 효사 자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콤플렉스에 사로잡혀 점괘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다가 낭패를 겪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주역 점에 대한 고사古史가 있다.

[춘추전] 소공 12년조에 보면 다음과 같은 점례가 있다. 남괴(南蒯)라는 사람이 반역을 하려고 점괘를 얻어보니 곤지비(坤之比)가 나왔다. 곤괘(坤卦)의 육오가 변해서 지괘가 비괘(比卦)가 되었다는 것이죠. 남괴가 곤괘 육오 효사의 '황상 원길(黃裳元吉)'을 보고 자복혜백(子服惠伯)이라는 이에게 “누런 곤룡포를 입고 용상에 앉는 임금이 되는 것이므로 내가 도모하는 일이 성사되어 크게 길한 것이

33) 이기동 (2010): 《주역강설》,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서울, pp64-65.

34) 이부영 (2011): 앞의 책, pp202-203.

아니냐?”고 물었다. 자복해백이 “충신의 일에는 옳지만, 그렇지 않을 땐 반드시 패할 것이오.”라고 충고하였는데, 과연 뒤에 남괴가 역모를 꾸미다가 패해서 죽고 말았다고 한다.<sup>35)</sup>

이 고사에서 자복해백은 이렇게 점괘를 해설했다고 한다.

“또 역으로는 험한 일은 점하지 않는 것인데, 장차 무슨 일을 하려고 이러한 점을 했는가? 중간이 아름다우면 ‘황(黃)’이 되며, 위가 아름다우면 ‘원(元)’이 되고, 아래가 아름다우면 ‘상(裳)’이 되니, 이 셋을 이룬 후에는 효사의 내용과 같이 길할 수 있지만, 하나라도 결여되어 있다면 점서에 비록 길하다고 했어도 반대로 될 것이다.”<sup>36)</sup>

김석진은 이에 대해서 ‘점을 해석할 때 자신의 처한 상황 및 점해서 나온 괘의 성격을 잘 살펴서 해야 올바른 풀이를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효사에는 ‘원길’ 매우 길하다가 나왔지만, 그 점친 사람이 그 효사에 부합되는 준비가 되어있지 않고 그 효사로 자신을 비추어 반성하는데 쓰지 않으면 도리어 해가 된다. 이 고사는 용이 [인간과 상징]에서 꿈의 해석에 있어서의 위험성을 설명하면서 인용한 고사(古史)와 유사하다.

꿈은 종종 하나의 함정으로 판명된다. 최소한 그렇게 보인다. 꿈은 때로 크로이소스 왕에게 그가 할리스 강을 건넌다면 그는 거대한 왕국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한 델피의 신탁과 같은 작용을 한다. 그 신탁이 말한 왕국이 자신의 왕국임을 알게 된 것은 그가 강을 건너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난 다음이었다. 꿈을 다루는 데 있어 누구도 단순하고 안이한 태도를 취할 수 없다. 꿈은 전혀 인간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연의 숨결에서, 아름다우며 관대한 동시에 잔인하기도 한 여신女神의 정신에서 솟아나는 것이다.<sup>37)</sup>

크로이소스 왕도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오만에 가득 차 델피의 신탁을 잘못 해석해서 자신의 왕국을 멸망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꿈이나 주역 점괘를 해석할 때는 경험과 지식이 모두 필요하다. 그리고 꿈과 주역 점괘로부터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 앞서 말한 종교적 자세가 필요하다. 이부영은 이렇게 말한다.

35) 김석진 (2019): 《새로 쓴 대산주역강의1》, 대유학당, 서울, p145.

36) 김석진 (2019): 앞의 책, p512.

37) Jung CG et al., 이부영 외(역) (2013): 《인간과 상징》, 집문당, 서울, p53.

그는 꿈을 앞에 두고 “이 꿈이 나에게 무엇을 말해 주고자 하는가?”, “무슨 목적으로 이 꿈이 나타났을까?”를 묻는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왜’, ‘무슨 목적으로’하고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유기체는 복잡한 합목적적인 기능으로 이루어지며, 각 기능이 모두 일련의 합목적적으로 방향 지어진 개개의 사실을 낳기 때문이다.”<sup>38)</sup> 옹은 이렇게 말한다.

주역의 점괘를 해석하려고 할 때 그 상징적 문구의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이것에 대해 처음에는 혼란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그 혼란과 함께 점을 친 사람의 정신도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유연해질 수 있다. 이러한 최초의 혼란은 상징의 문을 열고 그것에 대해 점을 친 사람이 열린 자세로 그 상징에 집중하게 해준다. 그리고 그 의미를 해석한 문구들에 대해 고심해갈 때 점을 치게 한, 그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분석심리학에서 꿈을 해석하는 과정과도 같다. 내담자도 처음에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러나 자신의 무의식의 직접적인 산물인 꿈의 상징과 접하여 혼란스러워하다가 분석 작업을 통해 그것에 대해 연상하고 확충, 해석하면서 그 꿈의 목적의미, 의식의 맹점(盲點)에 대한 보상작용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과 상황을 다시 보게 되어 변환된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 대한 하나의 점괘에 고착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상황에서는 새로운 점괘를 통해 상황인식과 대처방식을 변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태도가 주역의 정신인 변화(change), 역易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박연규는 설명한다.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 하나의 점사를 마주할 때 과거 지닌 ‘간헐’ 영향에 압도될 수밖에 없다. 그 순간 나는 자신이 마주한 점사를 두려운 마음으로 직면해야 하고 점이 제시하는 주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는 그 점사의 재현에 충실하다가도 다음 날이면 또 다른 괘 앞에서 전혀 다른 상황을 맞이하고 전날의 재현에 매몰되지 않으려고 한다. 괘를 기호학적 실재론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단독자로서의 인간이 한순간의 체념에서 벗어나 이내 또 다른 괘 해석의 흐름을 따라 변화하는 데 있다. 주역은 재현에 의한 관계의 철학이다.<sup>39)</sup>

38) 이부영 (2011): 앞의 책, p210.

39) 박연규 (2021): 《주역의 기호학-퍼스 기호학으로 보는 괘의 재현과 관계》, 예문서원, 서울, pp330-331.

이런 태도는 일련의 꿈을 계속해서 관찰해 가면서 의식의 일방성을 그때그때마다 다양한 방향으로 보상해주는 무의식의 변화무쌍한-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상반되는 조언을 하여 비일관적인 듯한-작용을 관조함으로써 무의식의 창조성을 경험하여 의식의 지평을 넓혀 가는 분석심리학의 기본 태도와도 상통한다.

외부 사건과 내적 체험, 초개인적인 실재와 개인 의식의 조우(遭遇), 이러한 대극의 합일을 경험할 수 있는 장(field)이 융학과 분석가에게는 꿈으로, 또는 적극적 명상으로 펼쳐진다. 그리고 융이 동시성 현상을 명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주역점을 통해서도 이러한 장(場)과 접할 수 있다. 이러한 동시성 현상의 체험은 어떤 개인에게는 꿈 보다 생생하고 외부 현실적 삶과 연관된, 의미심장한 주관적 체험이 될 수 있다. 이제 나의 개인적인 주역 점의 체험을 앞서 설명한 분석심리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 주역 점과 꿈: 저자의 실제 체험-아버지의 영전(靈前)에서

2022년 7월 14일, 5년 3개월의 폐암 투병 끝에 골절상으로 3개월 간 와병하시다가 소천하신 아버지의 임종을 앞두고 주말마다 간병을 하면서 나는 6월 중순 주역점을 쳤다. 그때 아버지는 누워서 귀는 열려 있으나 말씀은 하실 수 없는 상태였다.

“아버지와 나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주역의 19번째 괘, 지택 임괘(地澤 臨卦) ䷒ 초구를 점괘로 얻었다.

‘임괘(臨卦)의 하괘(下卦)는 태(兌 ䷹), 연못과 기쁨을 상징한다. 상괘(上卦)는 곤(坤 ䷁), 대지와 순종을 상징한다. 따라서 ‘임괘는 기쁨으로 기꺼이 순종하는 덕을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sup>40)</sup>고 이용주는 설명한다. 아버지와 나는 임종을 앞두고 ‘기쁨으로 기꺼이 순종하는 덕’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역 점괘는 말해주었다. 죽음을 우리나라에서는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한다. ‘소천(召天)’ 하늘로, 하늘님, 신께 부름을 받아 되돌아간다는 뜻일 것이다. 아버지와 나는 임종(臨終), 마침

40) 이용주 (2021): 《주역의 예지, [역경] 64괘 읽기》, (주)이학사, 서울, p234.

에 임해서 '기쁨으로 순종하여야'하는 것이다. 하지만 살아 계신 아버지에게 제대로 효도하지 못한 한(恨)은 눈물로만 흐른다. 그런 나에게 주역은 '기쁨으로 순종하라'고 위로한다.

지택림의 과사는 다음과 같다.

臨, 元亨, 利貞, 至于八月, 有凶.

임, 크게亨통하다. 곧으면 이롭다. 팔월에 이르면 흉하다.<sup>41)</sup>

'지우팔월유흉(至于八月有凶)'에 대해 김석진은 '한 해의 12개월을 음양소장의 이치로 살펴보면 일양이 시행하는 지뢰 복괘(復卦)(11월 동지달)로부터 여덟 번째 달이 6월괘인 천산 돈괘(遯卦)가 되어 군자가 소인을 피해 물러가는 것<sup>42)</sup>이라고 설명한다. 이 설명에 따르면 '음력 6월에 흉한 일이 있다'고 주역 점괘는 말한다.<sup>43)</sup> 이 점괘를 받아들고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슬프게도 신묘하게 들어맞는 점괘가 되었다. 실제로 아버지는 음력 6월에 돌아가셨다. 소천하셨다. 이러한 시간을 초월한 예언, 주역점의 동시성 현상은 우리를 넘어선 어떤 존재에 대한 체험과 죽음이 그저 끝이 아니라는 희망을 품게 해준다. 아버지의 죽음은 겉보기에는 분명히 흉(凶)한 일이다. 임괘는 '지우팔월유흉'을 통해 양이 성하기 시작하지만, 다시 음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음양성쇠의 법칙을 미리 대비하라고 알려준다-생(生) 뒤에는 반드시 사(死)가 뒤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주역의 원리를 대변하는 원형이정(元亨利貞)이라는 표현은 주역의 첫 번째 괘인 하늘 건괘의 과사이기도 하다. 김석진은 '이러한 하늘의 섭리를 알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은 춘하추동 사시(四時)의 변화이다.'<sup>44)</sup>라고 설명한다.

41) 이용주 (2021): 앞의 책, p233.

42) 김석진 (2019): 앞의 책, pp409-411.

43) 왕필(王弼)은 임괘에서 시작으로 하여 8개월에 해당하는 비괘(否)를 지우팔월로 보고, 주희(朱熹)는 12벽괘의 8월 괘인 관괘를 지우팔월로 보고, 정이천(程伊川)은 12벽괘(辟卦)의 시작인 음력 11월 복괘(復)에서 8번째 달인 돈괘를 지우팔월로 본다. 학자들마다 지우팔월을 설명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박연규는 설명했다. 그러므로 이를 동시성에 의한 예언으로 보기 힘든 점도 있다. 하지만 어떤 해석도 음양성쇠의 법칙에 따라 생(양) 뒤에 사(음)가 뒤따르는 자연법칙을 주목하라는 취지는 일치하고 있어 나에게 부친상을 임하는 자세에 대한 조언으로서의 의미는 그래도 남게 된다.

44) 김석진 (2019): 앞의 책, pp479-480.

우리 인생의 사시는 태어남과 늙음과 병듦과 죽음, 생로병사일 것이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겨울은 끝이 아니라 봄이라는 새로운 시작과 이어져 있다. 아버지 4일장을 치르는 도중 딸은 나에게 아버지 이재호의 수필집 [축제]의 표지에 있는 다음 문구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었다.

낙엽이 지는 것을 인간은 슬퍼하지만

흙이 되어 다음 새 생명을 위한 희망으로 가득 찬 희망의 축제이다.

이제 겨울이 올 것이다. 설레는 마음으로 다음 축제를 위한 준비 기간이 시작된다.

지금 보이는 저 나비나 잠자리는 죽어 흙이 되겠지만

내년에도 잠자리는 날고 나비는 꽃을 희롱할 것이다.

죽음은 새 생명을 위한 희망이며 소멸은 잉태를 위한 축제다.

- 본문 '축제'<sup>45)</sup>중에서 -

직접 문상을 와주었던, 소아정신과 의사인 동료는 SNS에 올린 이 사진 밑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었다.

죽음과 소멸이 새 생명과 잉태로 이어져 아버님의 영(靈)<sup>46)</sup>이 선생님 속에서 이어지길 기원하고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그 동료와의 대화 중에 내가 어려서 치과의사인 아버지가 주일인 일요일에 장애인 특수학교에서 치과 자원봉사를 하는 모습을 보았던 것이 내가 발달장애인들과 연관된 사회활동에 열심있게 된 서사(序詞, prologue)임을 알 수 있었고, 초등학교 때 주말마다 팔공산 파계사를 아버지의 손을 잡고 따라다녔던 경험이 등산을 즐기면서 자연 속에서 치유받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것으로 이어짐을 깨달을 수 있었다.

나는 2022년 올해 1월에 이런 꿈을 꾸었다. 그 때는 아직 아버지의 임종을

45) 아버지는 이 수필로 2015년 제14회 국제펜아카데미 문학상을 수상하였다.

46) 이부영 (2011): 앞의 책, p363.

'조령(祖靈) 숭배는 이러한 역사, 현재가 있게 한 과거의 뿌리를 찾고 그 원류(源流)를 오늘의 시간에 흐르게 하는 데 그 기능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조상은 일종의 활력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령숭배가 조상의 후광을 입고 이에 의지하기 위해서만 실시된다면, 이것은 자아의식의 약화를 초래하고 본래의 활력소와는 다른 음성적인 파괴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이부영의 관점처럼 조령숭배의 양면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며, 지금 나에게서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던 때였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나도 죽어서 어떤 폐쇄 병동 철문 같은 하얀 철문 앞에 섰다. 벨을 누르니 간호사 같은 사람이 나를 안내한다. 예약된 자리가 있다고 한다. 아버지를 거기서 만난다. 아버지는 살아서 보시(布施)를 많이 해서 좀 더 좋은 침대가 주어진다고 한다. ‘죽음 뒤에도 이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이 진실이었구나!’ 나는 생각한다.

정신을 뇌의 작용으로만 생각하는 서양의학적 관점에서 죽음 이후 정신적 존재는 상상할 수 없다. 하지만 정신이 물질적 뇌의 작동일 뿐만 아니라 태고로부터 이어져오는 인간의 체험 속에 이름 붙여진 ‘영혼’라는 존재로부터도 나온다면 육체적 죽음은 끝이 아닐지도 모른다. 물질에 대한 관념도 현대 양자 물리학의 발견으로 달라지고 있다. 빛의 이중성(입자이면서 파동), 양자 얽힘 현상은 불확정성의 원리와 상보성의 원리로 설명되면서 물질 세계에 대한 고전적인 결정론을 무너뜨렸다. 일반상대성이론은 그 너머의 관찰자와 상호작용할 수 없는 시공간의 경계면인 ‘사건의 지평선(Event horizon)’ 뒤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빛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다고 한다. 빛이 블랙홀 밖으로 빠져나오지는 못하지만 없어졌다고 말하기도 힘들다.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의 (조작될 수 없는) 꿈들을 분석하여 죽음에 대해 인간의 무의식(우리 속의 본성의 소리)은 무엇을 말하는가?<sup>47)</sup>를 탐구한 책 ‘꿈과 죽음’에서 폰 프란츠는 죽은 사람들의 정신도 그러할 지 모른다고 말한다.<sup>48)</sup>

내 꿈이 직접적으로 말하는 ‘죽음 뒤에도 이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이 진실’이라는 객관 단계의 해석뿐만 아니라 다른 관점, 주관 단계<sup>49)</sup>에서도 이 꿈을 이해해 볼 수 있다. 내 꿈에서 저승은 ‘폐쇄 병동’처럼 묘사된다. 이부영은 ‘의식,

47) Von Franz ML, 한오수(역) (2017): 《꿈과 죽음》, 한국융연구원, 서울, p7.

48) Von Franz ML, 한오수(역) (2017): 앞의 책, p234.

죽음은 죽은 사람과 살아 있는 사람 사이의 지각역치의 문제가 있음을 꿈은 내게 말하고자 하는 것 같다. 말하자면 죽은 사람들은 “사건의 지평선” 뒤 블랙홀에 있는 별처럼 사라져버렸지만 아직은 완전히 존재한다.

49) 이부영 (2011): 앞의 책, p213.

주관단계에서의 해석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꿈에 나오는 여러 대상이나 사건을 비록 그것이 현실과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꿈꾼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심리적 요소들, 즉 무의식적인 경향, 감정, 생각 등의 상징적 표현으로 보고 그것을 깨달아 의식에 동화시킴으로써 의식의 시야를 넓히는 해석이다.

즉 알고 있는 세계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되는 무의식이 저승이다. 무의식은 궁극적으로 미지의 마음의 심연이므로 저승을 우리가 끝내 남김없이 밝힐 수 없는 것처럼 결국은 모르는 세계이다<sup>50)</sup>고 말했다. 폐쇄 병동은 환자를 기존의 외부세계와 단절된 상태에서 정신의 치료를 진행시키는 곳이다. 그 갇힌 세계, 폐쇄 병동 속에서 새로운 정신의 회복, 치유가 진행된다. 나는 아버지의 임종 앞에서 폐쇄 병동으로 들어가는, 죽음과 같은 내향화(內向化) 과정을 거쳐야 진정한 아버지의 정신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내 정신 속 폐쇄 병동에서 부성(父性) 원형으로서의 아버지를 만나야 한다. 내향화를 통한 정신의 치유, 그것이 ‘폐쇄 병동’의 상징적 의미일 것이다. 폐쇄병동으로 나타나는 저승의 관련해서 확충해 보면 고대 중국인은 저승을 황천(黃泉)이라고 불렀다. 마르셀 그라네는 “신화와 의식에 관한 많은 제재들은 망자의 나라인 황천은 생명의 보금자리였음을 알려준다. 그래서 중국인은 양(陽)이 북극(陰)의 밑바닥(아래는 음이다)에 위치한 황천으로 피신하여 음에 둘러싸인 채 겨울(陰)을 보낸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그곳에서 양은 자신의 모든 기력을 회복하여 다시금 밭갈음으로 땅을 박차고 오를 채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기술했다.<sup>51)</sup> ‘죽은 사람을 매장한 북쪽은 다음의 파종을 위해 곡식의 씨앗이 보관되었던 곳이기도 했다. 그렇게 땅속으로 동면을 하러 간 죽은 사람과 북쪽에 있는 창고에서 쉬고 있다가 봄에 새로운 생명으로 깨어나는 곡식의 씨앗 사이에는 신비스러운 유사성이 있는 것<sup>52)</sup>이라고 폰 프란츠는 말한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물(음) 속에서 간혀 겨울을 견디어 내는 과정은 폐쇄 병동 안에서 간혀 치료받는 과정과 유사하다. 그 폐쇄 병동의 철문이 하얀 색인 것도 인상적이다. 테오도르 압트는 하얀 색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다른 색이 전혀 물들지 않은 하얀 옷은 쉽게 염색될 수 있다. 라틴어 candidus 라는 단어는 하양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후보자(candidate)라는 단어에서 연유한다. 세례, 성찬식, 결혼, 장례와 같은 통과의례에서 주로 흰색 옷을 입는다. 따라서 하양은 다시 〈염색되기 위한〉 의지 즉, 새로운 태도를 갖추기 위한 의지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삶의 기대하지 않았던 국면이 들어오도록 개방하고

50) 이부영 (2011): 앞의 책, p358.

51) Granet M, 유병태(역) (2020): 《중국사유》, 한길사, 경기도, p220

52) Von Franz ML, 한오수(역) (2017): 앞의 책, p70.

허용하게 되는 <영원을 향한 창문>과 같은 것을 가리킨다.<sup>53)</sup>

‘하양이 삶의 기대하지 않았던 국면이 들어오도록 개방하고 허용하게 되는 <영원을 향한 창문>으로 새로운 태도를 갖추기 위한 의지를 상징한다’는 설명을 내 꿈에 나온 저승으로 가는 하얀 문에 적용할 때 이것은 꿈의 주관 단계의 해석과 객관 단계의 해석 모두에 통할 듯하다. 상징적인 하얀 문을 통과하면서 살아있을 때 우리가 정신적인 죽음과 부활을 겪으며 성숙해지듯이 실제적 죽음 이후에도 새로운 형태의 무언가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하얀 문, ‘영원을 향한 창문’<sup>54)</sup>을 통해 영원, 분석심리학적 용어로는 자기(自己, Selbst)와 연결되어 자기를 의식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결실로 맺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의미(目的意味, Zwecksinn)일 것이다. 폰 프란츠는 앞서 말한 책에서 ‘인간이 무의식으로부터 의식화한 것만을 ‘결실’로써 내세에 함께 옮겨 가지고 가는 것 같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다-이 결실은 저 세상의 “보물창고”나 “도서관” 또는 “곡물창고”에서 오래 계속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sup>55)</sup>고 말한다.

그런데 내 꿈에서 알 수 없는 세계인 저승에서도 도덕 법칙은 작용하여 남을 돕는 보시를 많이 한 아버지는 보다 나은 보상을 받는다. 그것은 무슨 뜻일까? 임종을 앞두고 아버지와 나를 위해 얻었던 주역 점괘, 지택림의 초구의 효사를 통해 그 뜻을 이해해보려고 한다.

初九, 咸臨, 貞, 吉.

초구는 감동하여 임하니, 바르게 하여 길하다.<sup>56)</sup>

상전(象傳)에서는 ‘함림정길(咸臨貞吉), 지행정야(志行正也)-뜻이 바르게 실

53) Abt T, 이유경(역) (2008): 앞의 책, p104.

54) 이부영 (2011): 앞의 책, p338.

C.G. 융은 만년의 저작 [융합의 비의]에서 ‘연금술사 도른Gerhard Dorn은 그러한 창문을 “영원의 창fenestra aeternitatis”, 또는 “영원의 기공氣孔spiraculum aeternitatis”라고 기술했으며, 일시적인 세계에 영원을 불어넣어주는 구멍이라는 뜻으로 이것은 바로 ‘자기Selbst’의 체험과 같은 것이라고 해석하였고, 이것을 통해 일방적인 세계상世界像에의 집착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보았다.

55) Von Franz ML, 한오수(역) (2017): 앞의 책, p215.

56) 이용주 (2021): 앞의 책, p235.

행된다.’라고 풀이한다.

아버지는 가난으로 곤궁한 청년 시절, 고등학교 선생님이 서울까지 찾아와  
줘여준 ‘석장의 지폐’<sup>57)</sup>를 소재로 수필을 쓰셨고, 그의 대표작이라 할 만하다  
(아버지의 첫번째 수필집 제목이기도 하다).

교문 가까이에서 선생님은 내 어깨에 손을 얹으셨다.

“힘들더라도 견디어야 한다.”

나는 조용히 머리를 끄덕였다.

“너 하고 식사를 함께하려고 했는데 차 시간 때문에 안 되겠다.”

하시며 안주머니를 뒤지시더니 지폐 석 장을 꺼내신다.

“받아라.”

“괜찮습니다, 선생님.”

그 때 바람이 불어 지폐 한 장이 수위실 쪽으로 날아갔다. 선생님은 그 큰 키  
로 경충경충 달려가 지폐를 주워 내 손에 쥐어 주시고

“간다.”

하시며 건널목을 건너셨다.

그때 내 손에 쥐어진 석 장의 지폐가 얼마짜리인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

(종략)

머칠을 비워 둔 연탄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서 연기 때문이기도 하고 감동 때문  
이기도 해서 눈물이 뒤범벅이 되어 밥을 지었다. 빈속에 너무 많이 먹은 탓인지  
노곤해진 눈으로 다시 지폐를 꺼내 보았다. 지폐 위에 베어 나오는 피 같은 따사  
로움.<sup>58)</sup>

아버지는 이러한 주변의 은혜에 보답하여 출신 상주 고등학교에 한동안 장  
학금을 기탁하기도 하셨다. 그 수필의 마지막 문구는 이렇게 끝난다. “누가 인  
생을 잡지 표지처럼 통속한 것이라 했는가?”

리하르트 빌헬름은 임괘의 초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다.

57) 이 작품은 특히 은사 황영목 선생이 갑자기 돌아가신 후 학교 교지에 조사를 써 달라는  
원고 청탁을 받고 그리움에 눈물을 흘리면서 쓴 글이다.-대구일보. 2003-06-15 나호룡 기  
자.

58) 이재호 (2003): 《석장의 지폐》, 도서출판 그루, 서울, pp16-19.

초구, 공동의 접근, 굳건한 마음(Beharrlichkeit)이 길하다.

선함이 스스로 자신을 관철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곳에서 그에 대한 호응이 있다. 바로 거기에서 유능한 사람들을 데려오는 자극이 생긴다. 이 때 우리는 우리의 활동을 위로 향하도록 방향 지워도 좋다. 다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일관되게 올바른을 지니도록 숙려해야 하며, 바로 이런 자세가 길함을 부여한다.<sup>59)</sup>

아버지는 6·25 한국 전쟁 후의 곤궁한 시대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자존심을 지키려고 애썼고, 거기에 은사(恩師)의 호응이 있었다. 그 만남, ‘공동의<sup>60)</sup> 접근’ 속에 잡지 같은 통속성을 넘어서는 피 같은 파사로우미, 감동(感動)<sup>61)</sup>이 굳건한 마음, 정(貞)으로 이어진다. 함(咸)자는 느낄 감(感)자에서 ‘마음 심(心)’이 없어 몸으로 마음으로 모두 느끼는 것<sup>62)</sup>이라는 뜻이 있다고 한다. 아버지의 죽음을 임(臨)하면서 얻게 된 이러한 체험에 나도 그 의지를 이어받아 몸과 마음을 다하여(함[咸]) 굳건히(정[貞]) 뜻을 바르게 행하면서(지행정[志行正])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길(吉)한 것이다. 바로 그때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흉(凶)이 길(吉)로 바뀌게 될 것이다.

C.G. 융은 본질적인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인류에게 던져진 결정적인 물음이란 그대는 무한한 것에 연계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시금석이다. 우리가 이미 이승의 삶에서 무한한 것에 결속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이해할 때 우리의 욕구와 자세가 바뀌게 된다. 결국 인간에게 합당한 것은 오직 본질적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갖지 않았다면 인생은 허비된 것이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무한한 것

59) Wilhelm R (1923): *The I Ching, or, Book of Changes*, p89.

60) 리하르트 빌헬름은 함(咸)을 ‘느낄’함으로 풀이하지 않고, ‘다’함, ‘모두’함으로 풀이하여 함림(咸臨)을 ‘함께 접근한다. Joint approach, 공동의 접근’이라고 해석한다. 주자(朱子)도 이와 비슷한 해석했다. ‘초구의 해석에 대해 주자(朱子)는 함을 “일마다, 모두”라고 풀이한다. 이양(二陽)이 사음(四陰)위에 군림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이용주(2021): 앞의 책, p236

61) 이용주 (2021): 앞의 책, p236.

‘함림(咸臨)’의 함은 감(感), 즉 감동, 감응이다. ‘함림’이란 상대방을 감동시켜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경(下經)의 함괘(咸卦)를 감(感)이라고 해석하는 것을 볼 때 이 경우도 감이라고 보는 것이 온당할 것 같다.

62) 김석진 (2019): 앞의 책, 새로 쓴 대산주역강의2, p20.

이 그 속에 표현되는지 안 되는지가 결정적인 것이다.<sup>63)</sup>

그 본질적인 무한한 것과의 맺어짐이 뜻이 바르게 살아지는 것이다(지행정 志行正). 그것이 다른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감동, 은혜와 그 깊음으로 펼쳐진다. 무한한 것과 맺어짐으로 바르게 되는 것을 주역에서는 ‘중정(中正)’이라고 표현한다. 중(中)의 자리에 설 때 비로소 바르게(정正) 될 수 있다. 이때 중(中)은 무한한 것, 분석심리학적으로 ‘자아(ego)’의 입장에 치우치지 않는 전체정신의 중심인 ‘자기(Self)’에 해당한다. 그때 모두에게 바른 일이 행해진다. 중(中)에 대해 이부영은 이렇게 설명한다.

‘중앙’ die Mitte은 분석심리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그것은 대극합일의 결과 도달할 수 있는 전체정신의 중심이다. 자아의 관점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정신의 시야에서 사물을 보고 판단하고 행동할 때 대극 간의 갈등은 해결된다.<sup>64)</sup>

중정(中正)은 이후 유교경전 중용(中庸)에서 ‘중화(中和)’이라는 용어로 발전된다.

중화의 ‘중(中)’은 ‘희로애락이 아직 발현되지 않은 상태로서, 천부본연(天賦本然)의 성이며 천명의 성(天命之性)인 것이고, 그것은 미발(未發)의 상태이므로 불편불의(不偏不倚)요 과불급(過不及)이 없는 상태이며, 심지체(心之體)로서 은(隱)인 것이다. 그리고 중화의 ‘화(和)’는 희로애락이 절도에 맞는 것, 즉 중절(中節)을 말하는 것이므로 천하의 달도(達道)이며, 심지용(心之用)으로서 삼라만상에 현현(顯現)되는 것으로 비(費)라 하겠다.’<sup>65)</sup>

이렇듯 ‘중(中)’은 유교적으로는 불편불의(不偏不倚)요 과불급(過不及)이 없는 상태, 천명의 성(天命之性)이고, 분석심리학적으로는 대극합의의 결과로 도달할 수 있는 전체정신의 중심인 자기원형(Self Archetype)의 성질(體)로서 그 전체정신의 중심에 설 때 모두가 감동 속에서 서로를 돕고 살리는 은혜가 작동한다. 이러한 은혜의 작용(用)이 ‘정(正)’으로 유교적으로는 삼라만상에 현현(顯現)되는, 천하의 달도(達道)이고, 분석심리학적으로는 자기실현(Selbstver-

63) Jaffe A, 이부영(역) (2012): 앞의 책, pp405-407.

64) 이부영 (2020): 《괴테와 융》, 한길사, 경기도. p427.

65) 최영진 (199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중용사상, encykorea.aks.ac.kr.

wirklichung)으로 이를 위해서는 ‘자기의 가능성을 받아들여 실천으로 옮기는, 자아의 용기와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이부영은 말한다.<sup>66)</sup>

‘함림정길(咸臨貞吉), 지행정야(志行正也)-지은(知恩)보은(報恩)하며(함림咸臨), “힘들어도 견디어 내고”(정, 貞), 자신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지행정, 志行正) 그것이 아버지의 진정한 유산(遺産)이자 아버지의 영혼이 내 속에서 계속 살아있게 하는 길, 도(道)일 것이다. C.G. 용은 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 안에 발견되지 않는 길은 심리적으로 살아 있는 것, 고전 중국 철학이 ‘도(道)’라고 부르며 목표를 향해 계속 흘러가는 물과 비교하는 것과 같다. 도 안에 있음은 완성, 전체성, 채워진 소명, 사물에 고요한 존재 의미의 시작이자 목표이자 완전한 실현이다. 인격은 도(道)이다.<sup>67)</sup>

이러한 도와 함께 하여 채워진 소명(召命), 자신의 가능성을 펼쳐내어 자기 자신이 되어 세상에 한 일(자기실현)은 죽음을 넘어서 어떤 형태로든 결실로 남아 죽은 사람의 영혼과 남겨진 살아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이어주며 지속될 것이다. 이는 분석심리학적 입장에서는 의식(살아있는 사람의 영혼)과 무의식(죽은 사람의 영혼)의 상호작용으로 진행되는 개성화 과정의 상징으로 설명될 수도 있을 것이다. 천주교 교리(dogma)인 ‘성인(聖人)의 통공(通功)(Communio sanctorum)’에서 산 자와 죽은 자가 공로와 선행과 기도를 주고받으며 서로를 돕는, 나선형으로 순환되는 과정이 직선적인 권선징악을 넘어서는, 내 꿈속에 나오는 저승에까지 적용되는 도덕법칙의 참 뜻일 것이다. 이것은 함림정길咸臨貞吉, 함께 다가서서(咸臨, 공동의 접근 joint approach) 믿음(貞, 굳건한 마음 perseverance)으로 구원(吉, good fortune)에 이르는 여정일 것이다.

그런데 주역 점에서 보통 본괘(本卦)는 체(體)로, 지괘(之卦)는 용(用)으로 해석한다. 내가 주역점으로 얻은 지택림괘의 초구의 지괘는 지수사괘(地水師卦)의 초육(初六)이다. 지수사괘의 초육의 효사는 ‘사출이율(師出以律) 부장흉(否臧凶)’로 빌헬름의 역경 영문판에서는 이렇게 번역한다. ‘An army must set forth in proper order. If the order is not good, misfortune threatens.’<sup>68)</sup> 군대는

66) 이부영 (2011): 앞의 책, p135.

67) Jung CG, 한국용연구원 C.G.용 저작번역위원회(역) (2004): 앞의 책, p33.

68) Wilhelm R (1950): *The I Ching or Book of Changes (Bollingen Seri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Kindle Edition, p33.

적절한 질서로 진군해야 한다. 질서가 좋지 않으면 불운이 닥친다.’ 본괘의 ‘합림정길’에서 ‘길(吉)하다’는 표현과 달리 지괘의 ‘사출이율 부장흥’는 ‘그렇지 않으면 흥(凶)하다’는 표현으로 경각심을 일깨운다. 나는 본괘 지택림괘의 초구 ‘합림정길’을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에서 이해하고 있기에 그 대극에 숨어있는 내용을 숙고해야 한다. 그것이 지수사괘의 초효의 내용일 수 있다. 분석심리학의 핵심 관점- 그 반대편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은 전체 정신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다. 지수사괘(䷗)의 괘상은 하괘는 감(坎☵)으로 위험을, 상괘는 곤(坤☷)으로 순종을 뜻한다. 사(師)는 군대 혹은 전쟁을 상징한다.<sup>69)</sup> 그래서 하괘 감함은 전쟁의 흥함을 상징하고, 상괘 곤순은 군사들이 믿고 따름을 상징한다.<sup>70)</sup> 지수사괘는 군사를 일으켜 전쟁을 수행하는 방법에 해당한다<sup>71)</sup>고 신성수는 설명한다. 지수사괘의 괘사는 ‘사는 바르게 할지니 장인이야라 길하고 허물이 없으리라. 師 貞 丈人 吉无咎<sup>72)</sup>’고 김석진을 풀이한다. 용병술의 전제조건은 ‘올바름正’이다. ‘올바름’을 행하는 군대만이 천하를 정벌하고 백성을 복종시킬 수 있다<sup>73)</sup>고 주싱은 해석한다. 그래서 초육의 사출이율, 군대가 출동할 때는 군율, 올바르게 통제되어야만 한다고 풀이된다. 초육은 사괘의 맨 아래에 있어 군사가 되는데, 양자리에 음으로 있어 약하니, 전쟁에 대비한 훈련을 해야 하는 자리이다.<sup>74)</sup> 아쉽게도 유약한 장수를 상징한다.<sup>75)</sup>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역의 조언을 들어보면 아버지의 임종을 앞두고 전쟁에 나가는 군인의 심정으로 두려움 앞에 유약해지는 자신을 엄격하게 단련해가라는 뜻으로 다가온다. 죽음 앞의 삶은 전쟁을 앞둔 군인처럼 너무나 두렵고 그래서 비장한 각오도 필요로 한다. 지수사괘는 험함(하괘 감함), 죽음에 순종(상괘 곤순)해야 하지만, 거기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과 그에 따른 무력감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준다. 또한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한 믿음으로 생사를 초월하는 문 앞에서 엄격한 명령(order)을 받아서 굳건히 서야한다(師出以律)는 것도 가르쳐준다. 그러지 못하면 흥하게 된다. 그것이 아버지와 나 모두에게 임종을

69) 이용주 (2021): 앞의 책, p100.

70) 쉰 잉케이, 양 이밍, 박삼수(역) (2007): 《주역》, 현암사, 서울, p136.

71) 신성수 (2005): 《주역통해》, 대학서림, 서울, p187.

72) 김석진 (2019): 앞의 책, p216.

73) 주싱(祖行) (2010): 앞의 책, p130.

74) 신성수 (2005): 앞의 책, p189.

75) 쉰 잉케이, 양 이밍, 박삼수(역) (2007): 앞의 책, p139.

앞두고 받은 과제였던 것이다. 죽음 앞에서 이성을 넘어서는 감정의 떨림 앞에서 그 준엄한 자연의 법칙, 률(律)을 따라야 한다. 함림정길-아버지와 내가 함께(咸臨) 죽음을 넘어서는 무한한 것에 대한 전율과 감동 앞에 나란히 서고, 사출이율-그 엄중한 대자연의 법칙을 따를 때(以律) 흥하지 않고 길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것이다.

아버지의 상을 치르면서 내 인생에서 만났던, 많은 인연들이 보내주신 문상과 부조에서 나는 정말 깊은 위로를 받았다. 내가 생각하던 이상의 위로였다. 그들의 호의와 진심에 많은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앞으로 그 위로를 같은 방식으로 갚아 가야 할 것이다.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위로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질문의 답인 사랑일 것이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요한 4장 16절).’ 하느님은 가장 슬플 때 인간 속에서 서로 간의 사랑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신다.

지금까지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분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됩니다(요한 4장 12절).

## 나가는 글

아버지의 영전(靈前)에서 얻은 본질적인 질문, “무한한 것, 신이 존재하는가? 죽음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존재하고,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이 글을 쓰면서 나의 의식의 시야가 가시적인 것, 실용적인 것, 생(生)에만 집착하며 얼마나 좁았었는지를 새삼 알 수 있었다. 나는 과학적이라는 미명(美名) 아래 유물론적 사변(思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임종을 앞두고 얻은 주역 점괘 지택(地澤) 림(臨)에서 동시성 현상의 예언적 측면을 경험하면서 의식적 이성을 넘어서는 무언가의 존재 가능성을 나는 감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자연의 섭리에 ‘기쁘게 순종’하면서 겨울 뒤에 찾아올 봄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죽음 이후 생을 기다리는 자세, 그리고 통속적인 이해타산을 넘어서는 인간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무한한 것(분석심리학적 용어로는 ‘자기[Self]’과의 만남에서 얻은 감동을 굳건한 마음으로 지켜가는 것이 인생의 참 뜻을 바르게 행하는 것임을 나는 배울 수 있었다. 그

리고 나의 '저승'에 대한 꿈에서 '죽음 뒤에도 이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이 진실'이라는 직접적인 메시지의 충격 이외에도 확충의 과정을 통해 드러난 폐쇄 병동과 황천의 유사성-내향화를 통한 정신의 재생, 하얀 철문- '영원을 향한 창문'을 통해 통과의례를 거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는, 열린 태도의 중요성을 배웠다. 그리고 천주교의 교리 '성인의 통공'을 통해 산 자와 죽은 자가 서로를 도우며 나선형으로 순환하는 과정이 우리의 정신 내에서 의식과 무의식이 상호작용하는 개성화 과정의 상징으로서 뿐만 아니라 실제일 수도 있다는 조그마한 희망을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진행된 '연도(煉禱)<sup>76)</sup>의례를 통해 어렵듯이 품게 되었다. 그리고 인생에서 만난 많은 인연들의 조문을 통해 받은 위로 속에서 무한한 것과 접촉하여 맺어지는 길은 바로 눈 앞에 있는 존재들과 사랑하는 것이 그 시작이라는 답을 나는 우선 얻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비로소 직면하게 된 '신, 죽음 그리고 사랑'이라는 커다란 질문에 대한 대답의 극히 일부, 큰 바다에서 한 바가지의 물을 겨우 떼을 뿐이다. 무한 앞에서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본질적인 질문을 얼마나 잊고 살았는지를 다시금 깨달은 것이 가장 큰 성과이다. 그리고 내가 그러한 질문에 대한 '나의 답'을 삶을 통한 결실로 준비해 왔는지에 대해 반성하게 된다. 하지만 정말 '죽음' 뒤까지 이어지는 정신적 요소가 있는가는 아직까지 나에게에는 의문이다. 이제 겨우 유물론적인 사변에 대한 확신에서 벗어난 수준이다. 환자의 꿈과 나의 꿈 속에서 이승 후에 이어지는 것을 시사하는 메시지를 접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이하게 불가지론(不可知論)에 머물며, 절실하게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못하였지만 다시금 천착할 기회가 주어졌다. C.G. 융은 이러한 안이한 불가지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흔히 우리는 무의식의 가리킴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게을리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문제에는 해답이 없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인

76) 여춘자 (2016): "한국 천주교 '연도(煉禱)'의 분석심리학적 고찰", 《심성연구(心性研究)》, 한국분석심리학회, 31(1), pp1-2.

한국 천주교회에는 '연도(煉禱)'라고 하는 연옥 영혼들을 위한 독특한 방식의 위령기도가 있다. 연도의례에서는 죽음을 삶의 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라는 재생적 사건으로 바라보며, 연도의 상징적 과정은 죽음의 혼돈과 정화와 재생을 통한 낙원회복의 영적변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입문의례로서의 연도의례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속고를 위한 목적성을 가진 개성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간은 그가 사후의 생에 관한 의견을 만드는데 혹은 거기 관한 서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비록 자기의 무능력을 고백하면서도라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인가 앎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에게 묻는 자로서 해답을 요구하며 다가온 것은 인류의 태고로부터의 유산이다. 그것은 신비스러운 삶으로 가득 찬 하나의 원형이며 그 신비의 삶은 전체가 되기 위해 우리 것에 보태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sup>77)</sup>

또한 나는 죽음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그저 나의 고통을 떨기 위한 유아적인 바램을 넘어서는 실재적인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지고 내 자신의 마음 속에서 투명하게 관조해 가야 할 것이다. 인간 사이의 온갖 갈등과 인간 내면의 술한 갈등, 인간의 무수한 고통에 ‘사랑’이라는 대답이 통할 수 있을지도 한 인간으로서, 또한 정신적 고통 속에 찾아오는 환자를 만나는 정신과 의사로서 부딪혀<sup>78)</sup> 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여정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꼭 품고 가려는 성경 문구가 있다.

“그 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 곧 너희가 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마태오 복음 25장40절).’”

그 보잘것없는 형제는 내 안에도, 내 밖에도 있다. 이러한 보잘것없는 것과 무한한 것의 연관성에 대해 C.G. 융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자신 안에서 가장 제약되어 있다는 의식만이 무의식의 무한성에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깨달음에서 나는 나를 유한하면서도 영원하며, 이것이면서도 다른 것으로 경험한다. 내가 나를 고유한 일회적 존재로서 나의 개인적인 결함 속에서 궁극적으로 제약되어 있음을 알게 되면서 나는 또한 무한함을 의식할 수 있

77) Jaffe A, 이부영(역) (2012): 앞의 책, p378.

78) Ulanov A, 이재훈(역) (2005): 《영성과 심리치료》, 한국심리치료연구소, 서울, p105.  
앤 울라노프는 이러한 분석 과정에서의 영성적인 측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분석 상황은 번개가 치는 장소이다. 우리는 각 환자 앞에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으며, 그 환자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알 수 없다. 분석이란 위험을 감수하는 것, 모르는 상태에 머무르는 것, 유한한 인격 안에 담긴 무한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어떻게 그 개인이 무한 안에 담겨져 있는지를 바라보는 것이다. 분석은 감히 미지의 존재와의 만남을 감행하는 것이다.

는 가능성을 가진다. 일회성과 유한성은 동의어이다. 이것을 인식하지 않고 무한을 지각할 수 없다.<sup>79)</sup>

지극히 제한된 자로서 무한한 자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보잘것 없는 형제에게 한 것이 곧 왕에게 한 것이 되는 신비(神祕)이다. 이것이 ‘마음이 가난하여 복이 있어 하늘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복음(福音)일 것이다. 죽음과 삶, 영원과 순간을 둘이 아닌 것(불이不二)<sup>80)</sup>으로 느끼는 순간이 고통 속에서 발견되는 의미이고, 그것이 굳건히 버텨내는 힘을 줄 것이다. 그런 순간들을 눈물 속에서 나는 고대(苦待)한다. 맑은 하늘 에서는 보이지 않는, 먹구름 틈에서 내려오는 빛내림(silver lining)처럼 소망은 고통 속에서 찾아진다. 부족하더라도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의 감흥이 연기처럼 사라지지 않게 붙잡고 싶은, 나의 욕심과 고집일 것이다. 이것은 아직 아버지의 죽음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한 증거이기도 하다. 또한 아버지와의 추억을 간직하고 싶어하는 아이와 같은 심정이기도 하다. 언젠가 아버지의 죽음을 충분히 가슴에 담고 살아간 후 그 의미를 제대로 체화한 후 다시 글로 쓸 수 있는 날이 오도록 나는 노력해갈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경일 (1999): 《김경일 교수의 갑골문이야기》, 바다출판사, 서울.  
 김석진 (1994): 《대산주역점해》, 대유학당, 서울.  
 김석진 (2019): 《새로 쓴 대산주역강의 1》, 대유학당, 서울.  
 박연규 (2021): 《주역의 기호학-퍼스 기호학으로 보는 괘의 재현과 관계》, 예문서원, 서울.  
 쏜 잉레이, 양 이밍, 박삼수(역) (2007): 《주역》, 현암사, 서울.

79) Jaffe A, 이부영(역) (2012): 앞의 책, p407.

80) Ulanov A, 이재훈(역) (2005): 앞의 책, p130.

앤 울라노프는 이러한 ‘불이(不二)’에 대해 영적 실천과 연결하여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는 절대적인 그리고 무한한 존재 안에 있으며, 그 존재는 모든 것 안에 있고 수많은 형태를 띤다. 우리는 그것을 손으로 잡을 수 없으며 동시에 그것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구체적인 형태와 떼어서 생각할 수도 없다. 영적 실천이란 바로 이 사실에 대해 깨어있음을 의미한다(죽음의 사실은 너무 끔찍스러우며 애도는 너무 힘들다. 왜냐하면 타자의 구체적인 형태를 상실한 우리는 무한 안에서 그 형태를 다시 발견하기 위해 작업해야 하기 때문이다).

- 신성수 (2005): 《주역통해》, 대학서림, 서울.
- 이부영 (2011): 《제3판 분석심리학》, 일조각, 서울.
- \_\_\_\_\_ (2012): 《한국의 샤머니즘과 분석심리학, 고통과 치유의 상징을 찾아서》, 한길사, 경기도.
- \_\_\_\_\_ (2020): 《괴테와 융》, 한길사, 경기도.
- 이용주 (2021): 《주역의 예지, [역경] 64괘 읽기》, (주)이학사, 서울.
- 이재호 (2003): 《석장의 지폐》, 도서출판 그루, 서울.
- \_\_\_\_\_ (2013): 《축제》, 도서출판 그루, 서울.
- 이창일 (2008): “주술과 周易: 占筮易과 義理易의 통합적 이해의 역사”, 《서강인문논총》, 23.
- 여춘자 (2016): “한국 천주교 ‘연도(煉禱)’의 분석심리학적 고찰”, 《심성연구(心性研究)》, 31(1), 한국분석심리학회, 서울.
- 주상胤行, 고헤민(역) (2010): 《그림으로 풀어 쓴 역경》, 김영사, 서울.
- 최영진 (199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ncykorea.aks.ac.kr.
- Abt T, 이유경(역) (2008): 《융 심리학적 그림해석》, 분석심리학연구소, 서울.
- Granet M, 유병태(역) (2020): 《중국사유》, 한길사, 경기도.
- Jaffe A, 이부영(역) (2012): 《개정판 C.G. Jung의 회상, 꿈 그리고 사상》, 집문당, 서울.
- Jung CG et al., 이부영 외(역) (2013): 《인간과 상징》, 집문당, 서울.
- Jung CG, Wilhelm R, 이유경(역) (2014): 《황금꽃의 비밀 중국의 생명의 책》, 문학동네, 서울.
- Jung CG, Pauli WE, 이창일(역) (2015): 《자연의 해석과 정신》, 연암서가, 경기도
-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역) (2004): 융기본저작집 9권 《인간과 문화》, 솔출판사, 서울.
- Lewis CS, 이종태(역) (2008): 《기적》, 흥성사, 서울.
- Lewis, R, 류운(역) (2022): 《신 없는 세계에서 목적 찾기》, 바다출판사, 서울.
- Riterna R, Karcher S (1996): 1993-1994-1995, *JAHRBUCH-YEARBOOK-ANNALES ERANOS I Ching Project part I, 4-6*, Eranos Foundation, Ascona.
- Ulanov A, 이재훈(역) (2005): 《영성과 심리치료》, 한국심리치료연구소, 서울.
- Von Franz ML, 이부영(역) (2016): 《C.G. 융-우리 시대 그의 신화》, 서울.
- Von Franz ML, 한오수(역) (2017): 《꿈과 죽음》, 한국융연구원, 서울.
- Wilhelm R (1950, renewed 1977): *The I Ching or Book of Changes (Bollingen Series [General])*, Princeton University Press, Kindle Edition.

## Shim-Sŏng Yŏn-Gu 2022, 37 : 2

## 〈ABSTRACT〉

**Actual Experience of the Oracle of the I Ching–Death,  
God and Love: In Front of My Father’s Spirit**

Ju Hyun Lee, M.D., \* Bou-Yong Rhi, M.D., Ph.D. \*\*

The oracle of the I Ching, divination can be understood as ‘synchronicity phenomenon’ in analytic psychology. In order to experience divination actually, it requires a religious attitude that asks questions with a serious mind when a person is in trouble that consciousness reaches its limit. It is not just a passive attitude, but a modest, active attitude to ask what I can do now. The experience of the oracle of the I Ching connected to supra-consciousness is similar to ‘active imagination’-talking with the archetype of collective unconsciousness-and is ‘the process of finding the rhythm of Self-archetype, the absolute wisdom of unconsciousness.’ One month before my father's death, I took care of him who couldn't communicate verbally and I divination with a question ‘What can I do for my father and me now?’ The I Ching’s answer was hexagram 19 Lin 臨, nine at the beginning. It’s message was ‘咸臨貞吉 joint approach. perseverance brings good fortune.’ 志行正也 we must adhere perseveringly to what is right.’ Through this phrase, I learned the attitude of waiting for life after death as if ‘joyful obedient’ to the providence of nature that spring comes after winter. And I found that keeping the touching emotion of meeting infinity (in analytical psychological terms, ‘Self’) with perseveration is to do the true meaning of life beyond popular money-mindedness. And six months before my father's death, I had a dream about the afterlife. In the process of interpreting that dream, I learned not only from the shock of the direct message that ‘it is a truth that there is something after death,’ but also the regeneration of the mind through introversion from the similarity between the closed ward and ‘黃泉’-chinese underworld through amplification. And I learned the importance of an open attitude to accept new things through the ‘window to eternity’

symbolized by the white iron gate. In my father's catholic funeral ritual, I had hope that the catholic doctrine 'Communio Sanctorum'-A spiral cycle in which the living and the dead help each other may be real as well as a symbol of the individuation process in which consciousness and unconsciousness interact in our minds. Through the consolation received through the funeral visit of many people I met in my life, I found the answer that the path to contact with infinity begins with loving the beings in front of me. I tried to understand this continuous experience by the perspective of analytical psychology.

**KEYWORDS** : Catholic; Mass; Salvation; Individuation; Symbolism.

---

\*Inarae Psychiatry Clinic, Seoul, Korea

\*\*C.G. Jung Institute of Korea, Seoul, Korea